아서 단토《예술의 종말 이후 : 컨템퍼러리 미술과 역사의 울타리》

예술의 종말 의미와 포스트모더니즘 예술

글_박이문

《예술의 종말 이후 : 컨템퍼러리 미술과 역사의 울타리》
아서 단토 지음 | 이성훈 · 김광우 옮김 | 미술문화 | 448쪽
값 20,000원

예술은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것, 사실적 모방, 감동적 표현과 동일시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갤러리나 미술관,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에 가서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러운 쓰레기, 흉측하게 찌그러진 자동차. 이상한 행위예술 등과 직면할 때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예술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경험했을 것이다.

서양의 경우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그러했지만 예술 특히 미술이라는 예술영역에서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그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모네에서 피카소를 거쳐 온 모더니즘과 1917년 듀샹의 〈샘물〉이란 이름이 붙은 거꾸로 세운 남성용 헌 변기와 1964년 워홀의 〈브릴로 박스〉라는 제목이 붙은 브릴로라는 이름의 부엌용 비누 상자 세 개를 그대로 확대한 그림이 예술작품의 대열에 끼어들고, 1970년대 백남준이 정식으로 TV 세트로 비디오 아트를 창조한 이래로 열린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이 생기면서 대중들은 물론 예술가, 예술사가, 예술철학자도 예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술양상의 이 같은 변화, 예술에 대한 이 같은 미학적 혼란의 이유를 밝히고 예술의 새로운 개념정리 즉 정의가 절실함을 말해준다. 《예술의 종말 이후》의 목적과 가치는 그 제목과는 달리 예술의 종말 즉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공룡 같은 소멸과 그 이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더니스트적 예술작품과 그 뒤를 계승한 포스트모더니스트적 예술작품을 포함해서 서양 예술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예술을 통시적이면서도 공시적인 즉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술의 새로운 보편적 개념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단토에 의하면 헤겔의 철학이 문명의 역사를 가이스트(Geist)라고 부르는 절대정신이 자신의 정체성 · 본질을 추구하고 인식하게 되는 철학적 성장과정으로 파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의 역사도 예술이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인식하는 지적 성장과정의 역사였다. 이런 점에서 헤겔의 문명사관이 철학적인 역사관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토의 예술관도 감각적 아니라 지적 자기의식이라는 철학적 속성으로서만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절대정신 및 예술의 역사를 통한 성장과정들은 자의식이 부재한 유년적, 자의식에 눈이 뜨이는 청년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장년기를 거치는 한 인간의 성장기와 비교된다.

단토는 예술을 첫째, 자의식 즉 자신의 개념규정이 부재한 채 존재했던 유년기 즉 '예술 시기 이전의 예술', 둘째,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뜨고 자신의 개념규정을 시도했던 청년 기간의 예술 즉 '예술의 시기의 예술', 셋째, 자기의 정체성 · 본질 · 개념을 발견하고 규정하게 된 장년기 이후 즉 '예술

● 이 글을 쓴 박이문은
서울대 불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서울대의 초청교수를 거쳐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시몬스 대학 명예교수, 연세대 특별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한 허무주의자의 열정》《당신에겐 철학이 있습니까?》《과학의 도전, 철학의 응전》 등의 철학서와 《눈에 덮인 찰스 강변》《나비의 꿈》《공백의 그림자》등의 시집이 있다.

시기 이후의 예술' 이라는 세 종류의 예술로 나눈다. 두 번째 시기 즉 '예술의 시대의 예술' 에 있어서의 예술의 본질은 르네상스시기의 예술을 대변했던 미술평론가 바자리(Giorgino Vasari)와 모더니즘 예술을 대변하고 옹호했던 대표적 미술평론가 그린버그(Clemen Greenberg)에 의해서 각기 달리 시도되어왔다. 바자리는 플라톤 · 알리스토텔레스 이래 동서를 막론하고 일반사람들이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의 본질을 모방 · 표현으로서의 '재현'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사진기의 발명으로 이러한 정의로는 예술의 특수한 본질을 상실하게 됐다. 이런 맥락에서 그린버그가 어째서 비사실적인 모던니즘 예술작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형식의 독창성', '예술작품의 대상독립성'이라는 새로운 예술개념규정을 발명해야 했음을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술 개념으로 모더니즘 예술을 설명할 수 있지만, 폭발적으로 생산되는 TV전자 예술, 설치예술, 해프닝예술 작품 등은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바자리로 대표되는 전통적 예술의 정의나 그린버그로 대표되는 모더니스트적 예술의 정의가 보편성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틀린 정의임을 입증한다.

이런 시점에서 예술철학자 모리스 와이츠와 더불어 보편적인 본질 · 규명의 부재와 예술의 다양하고 가변적인 정의만이 가능하다는 '열린 예술개념'론을 펼 수 있다. 그러나 단토는 예술의 영원불변한 본질의 존재와 그것의 보편적 정의의 가능성을 확신한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예술의 개념규정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어느 정의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벨팅이 예술사의 차원에서 그리고 단토가 예술철학의 맥락에서 말하는 "예술의 종말"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예술작품의 폐기와 소멸 및 앞으로 더 이상 예술작품의 창조불가능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의들의 한결같은 오류, 적용불가능성을 뜻할 뿐임을 지적할 뿐이다. 이 책의 궁극적 목적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현재 우리를 당혹감에 빠트리게 하는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작품을 포함한 모든 예술의 의미를 설명하고 밝혀 줄 수 있는 예술의 개념 규정, 즉 예술의 본질을 밝혀주는 데 있다.

단토에 의하면 라스코 동굴의 벽화나 북미 사막 지대의 바위산에 그려진 이후 장구한 역사의 성장기를 거친 예술은 듀상의 작품 '샘물', 특히 워홀의 작품 '부릴로 박스' 를 통해서 지각적으로가 아니라 철학적 사유에 의해서만 식별될 수 있는 철학적, 즉 자기반성적 존재로 발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술의 본질이 지금까지와 같이 감각적 속성에 의해서 정의될 수 없음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 단토는 기존의 잘못된 모든 종류의 정의 · 규범에서 해방되어 포스트모던 예술작품들이 극명하게 보여주듯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는 '예술의 시기 이후의 예술' 즉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예술은 '무엇인가의 (about something) 육화된 의미(embodied meaning)' 이어야 한다는 두 조건에 의해서만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단토의 지금까지의 모든 예술담론에 대한 위와 같은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예술에 대한 위와 같은 정의는 '가능한 세계' 라는 양상론적 정의(modal definition)로 대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긴 설명이 필요한 이러한 정의는 이 서평과는 별도의 지면을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석학 단토의 방대한 철학적, 예술사적 지식으로 뒷받침된 역작인 이 책은 예술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념탑으로 남을 것이며, 이 책에 담긴 예술에 관한 단토의 사유를 모르고서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예술철학, 예술사 그리고 예술비평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